

## 빅리그 재진입 노리는 송성문, 트리플A서 5타수 2안타 2득점

등록 2026.04.30 13:43:51



[굿이어=AP/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루수 송성문이 26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시범경기 2회 말 수비하고 있다. 송성문은 6번 2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1안타 2볼넷 1삼진을 기록하며 7회 교체됐고, 팀은 10-11로 패했다. 2026.02.27.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빅리그 진입 하루 만에 다시 마이너리그 트리플A로 복귀한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팀인 엘파소 치와와스에서 뛰는 송성문은 30일(한국 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아이소톱스파크에서 열린 2026 마이너리그 트리플A 앨버커키 아이소톱스(콜로라도 로키스 산하)와의 경기에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전날(29일) 트리플A 복귀전에서 6타수 1안타를 기록했던 송성문은 이날 멀티히트를 터트리며 빅리그 재진입을 위해 무력시위를 펼쳤다.

올 시즌을 앞두고 미국 무대에 진출한 송성문은 훈련 도중 옆구리 부상을 당하며 부상자 명단(IL)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그리고 송성문은 지난 26일 샌디에이고가 멕시코시티 시리즈를 치르면서 빅리그 승격 기회를 잡았다. 샌디에이고는 특별 추가 로스터 규정을 통해 송성문을 27번째 선수로 등록했다.

이에 송성문은 2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8회 대주자로 출전하며 빅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나, 샌디에이고는 하루 만에 그를 다시 트리플A로 내려보냈다.

아쉬움을 삼킨 그는 이날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했다.

1회초 1사에 이날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선 송성문은 깔끔한 우전 안타를 날리며 팀의 첫 출루를 만들었다. 그는 후속 사마드 테일러의 홈런포에 홈을 밟으며 득점까지 올렸다.

엘파소가 3-0으로 앞선 2회초 1사 1루엔 바뀐 투수 가브리엘 휴스의 2구째 커브를 건어올려 우중간 담장을 때리는 1타점 적시 2루타를 작렬했다.

다만 후속 타자들이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며 송성문은 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4회초 1사엔 삼진, 6회초 1사 1루엔 땅볼로 아웃된 그는 8회초 2사엔 중견수 뜬공으로 돌아섰다.

송성문의 트리플A 타율은 0.291로 소폭 상승했다. 팀은 7-6 승리를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